



[경제종합] 삼성전자 해묵은 현안 해결 초격차 과제 잔결음 03



Economy

코스피	2936.44 (0.00)	코스닥	1005.89 (0.00)
금리 (연이자율)	1.863 (-0.070)	환율 (원/달러)	1193.30 (+3.10) (26일)

서울 부동산 겹악재에 '된서리'... 강남 재건축은 탄세상

(종부세·금리인상)

금리인상·종부세 쇼크에 거래량 2년6개월來 최저 아파트값 상승폭 0.01%p ↓ 중저가·정비사업 지역 강세 강남 재건축은 상승세 여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4주(22일 기준)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이 1주 전에 비해 0.18% 상승, 1년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28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라인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매수자들의 관망세와 매도자들의 버티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 증가로 다주택자들은 내년 5월까지(해마다 6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 확정) 매도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분석된다.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금리인상과 종부세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망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인상한데 이어 오는 2022년 1분기 중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택 관련 대출금의 상환 부담이 연쇄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는 등 금융당국의 대출 조정이 본격화되는 상황여서 아파트 매수세는 주춤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달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하며 11주째 하락한 데 이어 지난주(99.6)에 이어 2주 연속 100을 밑돌았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2주째 이어진 것이다.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건수 기준)은 지난 9월 2702건으로 2019년 3월(2282건)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0월 거래량도 현재까지 신고물량이 2292건에 머물러 9월보다 줄어든 전망이다. 11월 계약 신고건수는 지금까지 502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파트값 상승폭도 줄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라 직전주보다 오름폭이 0.01%포인트 축소됐다. 재건축이 0.10%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는 0.07% 올랐다.

서울은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역별로는 ▲금천(0.21%) ▲강남(0.15%) ▲강북(0.15%) ▲광진(0.15%) ▲관악(0.14%) ▲강동(0.13%) ▲강서(0.12%) ▲용산(0.11%) ▲종로(0.09%) ▲노원(0.08%) ▲구로(0.07%) ▲서초(0.07%) 순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최대사업장으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과 4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참여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 재건축은 0.15%에서 0.24%로 오름폭을 키웠다.

아파트 전세시장도 수요가 줄면서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아파트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전용 152㎡가 호가 58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12월 43억9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현대8차아파트 전용 163㎡는 50억원에 매물이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 8월 48억7000만원에 팔렸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社告

언론사 최초 기사이력 공시제도 도입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가짜뉴스' 논란 등 언론불신을 없애고 언론윤리에 앞장서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기사이력제는 기사화한 과정을 크게 6가지로 나눠 독자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독자가 궁금해 하는 '기사화 과정과 경위'를 기자가 자율적으로 공시합니다. 기사 하단에 표시될 기사이력 코드는 취재(기획)·취재(제보)·취재(자료보완)·보도자료/SNS서핑·기타(국내외 논문·학술지·증권사리포트·타언론사후속보도 등) 등 6가지입니다.

메트로는 기사이력제를 통



해 뉴스 생산자(기자)와 소비자(독자)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취재기자의 '자율공시'를 통해 언론윤리를 지키고, 기사 가치 제고를 꾀하겠습니다. 메트로에는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 독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형다사태에도 돈 몰리는 中 저금리에 국채로 자금 유입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中國채, 세계지수 편입 효과 수십억 글로벌 자본 유입 기대

中國 국채로 돈이 몰리고 있다.

형다그룹에서 시작된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로 회사채 시장은 흔들렸지만 글로벌 저금리 환경에 수익을 좇는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 이와 함께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수 제공업체들이 중국 국채를 지수에 편입시킨 것도 한 몫을 했다.

28일 FT증권망에 따르면 블랙록의 '아이셰어(iShares) 중국국채상장지수펀드(ETF)'는 지난달 21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한 달여 만인 이달 18일 기준 자금 조달 규모는 32억 5000만 위안(5억880만달러·6085억원)에 달한다. 같은 날 상장된 '아이셰어 단

기 중국 정책은행채 ETF'는 2억6500만 위안을 조달했다.

세계 주가지수 제공업체 FTSE러셀은 이들 ETF의 출시 일주일 후인 지난달 29일 중국 국채를 대표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글로벌 투자가 중국의 채권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의 전체 채권 시장 규모는 19조달러 이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았다.

블랙록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덱스 투자 책임자인 피터 로너트는 "중국 국채와 정책은행채가 주요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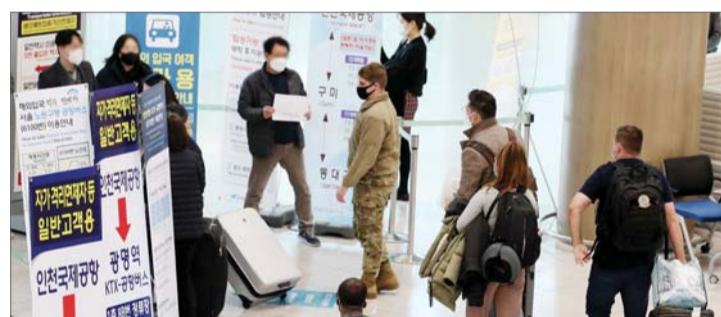
중국남방자산운용(CSOP)의 ETF에도 최근 몇 달간 자산 유입 규모가 늘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코로나 확진자 속출에 '오미크론'까지... 초비상

위중증 환자, 사망자 역대 최다 수도권 병상 가동률 85% 넘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까지 연일 최다 기록을 세우며, 5주차에 접어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까지 등장해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392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직전 주 토요일 확진자(3120명)보다 808명 많은 토요일 기준 최다 확진자다. 이 중 서울 1668명, 경기 1083명, 인천 276명 등 수도권이 3027명으로 77.8%를 차지한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정부가 오미크론 발생 국가인 남아공과 인접국인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늘며 우려를 키운다. 이날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647명으로 전 일보다 13명 늘며 다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지난 23일 549명 최다를 기록한 이후 연일 늘며 나흘 연속 6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사망자 역시 56명 늘어 누적 3548명이며, 치명률은 0.

80%다. 병상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날 기준,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85.4%로 85%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새로운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남아프리카공

화국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이라 명명하고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의 돌연변이가 발견된 새 변이 바이러스로,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돌연변이가 수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홍콩·영국·이탈리아 등에서의 변이 발생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향후 오미크론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도와 확산 정도를 파악해 대상 국가 조정·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문대통령 "바라카 원전 수주가 UAE와 국합협력 결실로"
▲ 이재명 "학살 주범 찬양하고 포 되려는 사람이 나라 맡아선 안돼" /사진 뉴시스

▲ 박용진 "대선 100일 앞, 이재명 중심으로 나아갈 것"
▲ 안철수 "예능 일방적 취소 통보 받아... 부당한 처우"



▲ 윤석열, '자진사퇴' 김성태 인선 논란에 "크게 의식 못했다" /사진 뉴시스
▲ 北선전대체, 전두환 사망 첫 언급... "흡수통일 개꿈 못 이뤄"